

하림,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부스 방문 고객 대상 제품 시식 기회 제공·게임 이벤트 진행 추첨 통해 경품 제공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은 "오는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7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17)'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최로 올해 35회를 맞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다양한 식품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는 아시아 대표 식품산업전시회다.

하림은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국내 및 해외 바이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및 육계산업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홍보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림의 친환경 프리미엄 닭고기 브랜드 '자연실록' 제품과 더불어 다양한 양념·가공 제품을 선보이고, 친환경 제품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림은 생산공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식 동물 복지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국내 축산물 최초로 사료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공정이 안전관리통합인증(HACCP)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하림이 출시한 다

양한 가정간편식(HMR)도 제공할 수 있다. 지역별미를 그대로 재현한 양념가공육 제품 '하림 춘천식 순살 닭갈비' '하림 안동식 순살 찜닭'을 비롯해, 지역 별미 요리를 냉동 볶음밥으로 재현한 '밥은 요리다 시리즈'와 포장마차 대표안주를 응용한 '하림 포장마차식 빼 없는 양념 닭발' 등의 반조리 제품도 소개한다.

이밖에 콜라겐이 풍부한 닭발 육수로 빚어 육즙이 풍부한 '하림 광대신 닭 왕고기'와 올해 18주년을 맞이한 '용가리 시리즈(5종 및 머스터드소스)' 등 하림의 대표 상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으로도 진출한 '하림 삼계탕'도 준비된다. 하림 삼계탕은 전통 삼계탕의 재료 및 조리법을 살려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냉동 보관하는 급속동결 제품(즉석 삼계탕)과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레토르트 제품(고향 삼계탕)이 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에 걸맞게 제품 전시 외에 피크닉과 캠핑용 닭고기 요리 레시피도 소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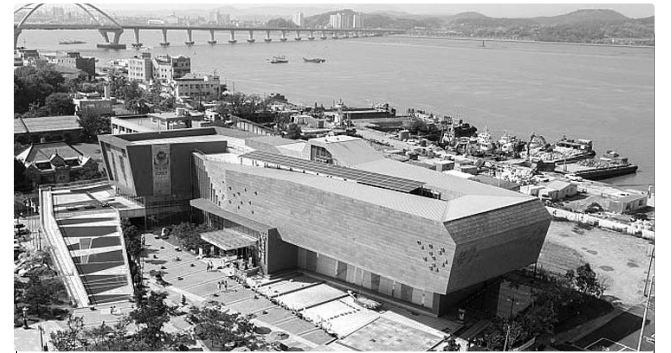
부스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식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추첨을 통해 하림 양념육 선물세트를 비롯한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림 마케팅팀 정충선 차장은 "이번 전시가 하림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은 "오는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7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쳐 생산된 국내산 닭고기 제품의 안전성과 다양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외 바이어들에게 하림 삼계탕 등 우수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블로그 기자단 모집

오는 22일까지 사무실 방문접수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박물관의 살아있는 현장 이야기를 참신한 시각으로 들려줄 제1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박물관의 다양한 매력과 숨겨진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모집은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및 일반인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블로그 기자단은 글,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등을 활용해 박물관과 근대문화의 온라인 알리미 역할을 담당할 예정으로, 위촉 이후 1년간 박물관의 전시 및 각종 문화프로그램 현장을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는 블로그 및 SNS(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게재·공개된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기자단에게 취재 및 출입(일부 행사 제외)이 가능한 기자증을 제공하고 활동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실적을 부여한다.

제1기 박물관 블로그기자단 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오는 22일까지 박물관 사무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근대역사박물관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우수 활동 기자로 선정되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며, 연말 우수 표창 시상 등 다양한 특전도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장현 기자

인 채널을 통해 게재·공개된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기자단에게 취재 및 출입(일부 행사 제외)이 가능한 기자증을 제공하고 활동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실적을 부여한다.

제1기 박물관 블로그기자단 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오는 22일까지 박물관 사무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근대역사박물관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우수 활동 기자로 선정되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며, 연말 우수 표창 시상 등 다양한 특전도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장현 기자

참게치어 금마저수지 방류

익산시는 17일 자연생태계 복원과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금마저수지에 참게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 행사는 익산시와 자율관리사업공동체회원들이 자연생태계의 변화와 외래어종의 유입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토산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류하는 참게치어는 전라북도 민물고기시절장에서 인공 부화한 것으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금마저수지에 방류해 수산자원의 증식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대입변화·대응책 특강

2군산시의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오는 25일 저녁 7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학부모와 자녀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대입변화와 대응책에 관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스카이에듀 입시연구소 장인희 교수가 강사로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방법은 온라인(www.KCN.TV, 금강방송) 또는 전화접수(1544-5400)로 예약이 가능하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시,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액 192억

3517개 법인에서 신고... 납부기간 내 182억 납부

군산시는 지난해 귀속분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에 따른 접수 결과, 3517개 법인에서 192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했으며 납부기간 내 182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납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는 지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신고법인 3416개 법인 190억원 신고에 대비하여 약 100여개의 법인이 늘어났으며 지난해 납부금액 183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납부액을 유지하여 시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5년 독립세로 전환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로 신고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경기침체의 장기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 기반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에서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과 리플렛

발출, 정광판·현수막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 못한 법인은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된다"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는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국제청 자료 등 철저한 분석을 거쳐 부과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시, 공공근로·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2일~26일까지

군산시는 저소득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올해 2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총 6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사업의 참여 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

세 이상 65세미만인 군산시민이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97만원 정도 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장현 기자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 첫 회의

익산시는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하여 원인 규명과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위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1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는 장점마을 대표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민관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장 선출, 민관협

의회 운영 방안,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 사항과 (유)금강농산 및 주변에 토양오염도 검사 등 환경오염 기초조사가 논의됐다.

시는 이날 지난 4월 17일 주민대책위와 함께 접수한 건강영향조사 청원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장점마을 주민이 추천한 위원 2명을 위원회 구성(안)에 포함하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관협의회 회의는 추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시 수시로 개회한다. /익산=장영원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본부, 군산 신청사 개청식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17일 군산 신청사에서 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 김관영 국회의원, 김일재 행정부지사, 문동성 시장, 관련기관 및 단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개최했다.

호남지역본부 신청사는 2015년 12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완공 후 올해 2월말 4개사가 이전을 완료하였다. 김도순 호남지역본부장은 맞춤형 수출검역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장현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